

# 주민 불편 신속 대응... 위기에 빛난 재난 행정



지하철 펌핑 작업



남부소방서 생활용수 지원



한전 비상전기 설치 작업

최강 한파에 1500명 단전·단수 불편...5시간만에 해결

식수 긴급지원도...주민들 "시·구청·소방·한전 등 감사"

"공직자 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최악의 추위에 떨었을 겁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7일 광주시 공무원들 덕분에 악몽 같은 단전, 단수에서 벗어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50분 봉선동 삼익2차 아파트 지하 기계실 소방관로 파손으로 기

계실이 침수되면서 급수모터펌프 등이 물에 잠겨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영하의 날씨 속에 390세대 1500여명 주민이 보일러 가동이 안돼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은 주민불편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여느 때 같으면 복구에 최장 20시간 걸릴 사고를 5시간만에 해결한 것이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한전 등과 함께 기계실에 대한 임시 복구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께 상수도 공급을, 8시10분께에는 전기공급을 재개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곧바로 아파트 단지에 자체 생산한 빚어울수 1.8ℓ에 400상자(2400병)를 긴급 지원했다. 남구청에서는 침수된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형 양수기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펼쳤다.

시 관계자들은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시민들이 씻을 수 있는 생활용수도 공급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고 접수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유용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현장에 보내 신속한 복구를 지휘토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김왕탁 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불편한 점과 필요한 것들을 세세히 파악한 뒤 지원토록 조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 회장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여시간이 넘게 소요될 복구공사를 최단시간인 5시간 만에 마쳐 상수도와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을 입주민 안내방송으로 전하는 등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광주시, 한전 등에 전화를 넣어 관계자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올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한·중 청소년 교류에 중점

문화·체육 분야 적극 추진

광주시는 올해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관광컨벤션부로서 주관하는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만6000여명을 유치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가시화와 2016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의 해,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등의 호재를 활용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과학관, 광주 지방법원 견학 등 광주가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해

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더 많은 중국 청소년들이 광주를 찾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첫 번째 교류 행사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주우 해사대부속중학교 배우고 학생 50여명이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학생 교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27~29일에는 중국 남방도시신문 어린이 기자단, 28~30일에는 산동성 거야현 중학교 학생들이 차례로 방문했으며 3월에는 일본 미야자키현립 간호대학 학생들과 사가미하라 유소년 FC 선수들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시 송재식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광주 방문을 연기한 청소년들이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작은 도움이라도..." 복구 설 앞두고 온정 밀물

광주시 복구는 설 명절을 맞아 익명의 독지가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는 각종 자생단체, 금융기관, 종교단체, 행정기관, 약국, 병원, 개인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과 백미, 떡국떡, 과일, 온누리 상품권, 제수용품 등 후원품 또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는 일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녀들이 1년간 모은 동전 13만원이 담긴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동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이 주민은 "저도 얼마 전까지 형편이 어려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시신 분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들이 스스로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온암동 한 시장 한복집에서 살바는 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할머니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찜질돈 15만9000원을 운임2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또 한 독지가가 익명으로 조순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에 전달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화장품 세트 81개를 복구정 복지정책과로 보내왔다.

한편 복구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5일까지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28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관내 어려운 이웃 5600여 세대에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차세대 인공관절 산업화 탄력

산자부 사업비 250억원 확보...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협력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임)이 정부의 대규모 광역거점사업에 선정돼 광주·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의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용합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광역거점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원센터 구축, 정형외과 인공관절 등 의료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과 산·학·연·병 협력관계를 구축해 연구개발에서 마케팅까지 혁신적인 의료기기 산업발전 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광주지역이 아시아 최대 정형외과용 용합의료기기 생산도시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의료기기를 선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세계 시장 403억 달러, 국내 시

장 6100억원으로 의료기기 수입 상위 30개 품목 중 정형외과 관련 부품이 1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관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1%에 이르는 수입위주 산업군이다.

정부의 이번 사업선정에 있어 윤장현 광주시장의 지역 생체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또한 전남대병원이 관절전문질환센터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운영하고, 정형외과 수술기기 등 30여년의 의료기기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총괄책임자인 윤택임 병원장은 "지금까지 기업과 병원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생산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서 "향후 차세대 인공관절 관련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 및 해외시장진출로 지역의료산업 발전과 국가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드론으로 촬영한 광주시 남구 승촌보 캠핑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유료 전환 승촌보 캠핑장 올해 행사 다채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광주시 남구 승촌보 캠핑장이 문화를 즐기고, 행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승촌보 캠핑장·축구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거쳐 유료화로 전환, 지난 29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유료화결제시스템인 '우리기림 이용도우미'(http://www.riverguide.go.kr)에서 시설사용 예약이 가능하다.

사용요금은 캠핑장의 경우 주말·성수기 2만원, 평일·비수기 1만5000원으로 광주시민은 30% 할인된다. 축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주말 5만원, 평일 4만원으로 다른 캠핑장과 축구장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됐다.

특히 지난해 연 2회 한부모가정 등 캠핑 기회를 갖기 힘든 이웃에게 캠핑장·장비 일체를 무료로 빌려주는 '행복나눔 캠핑체험' 행사를 올해부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5월과 10월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와 '캠핑장 영화관' 등 각종 문화행사와 남부소방서 및 보건기관과 함께 승촌공원을 찾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승촌보 캠핑장은 승촌공원 내 1만4400㎡ 부지에 53편의 캠핑공간을 갖추고, 축구장은 9532㎡의 경기장과 육상트랙, 화장실, 관람석 등으로 구성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2천만원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은,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싸고 좋은 물건**

주인직매 H.010-3605-5000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26286평(13만평중 1/5지분)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3천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경매, 낙찰물건 매매**

▶사건번호 - 2015타경1564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광산리 732-1번지

▶감정가/시세-14억5천만원

▶낙찰가-7억3천만원(입찰4명)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 지상4층

▶1층-음식점 및 숙박시설, 2~4층-숙박시설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현재 휴업상태

▶유치권해결, 명도완료,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요양원 등등 모든 용도 가능

▶대출-6억 3천만원 확정, 법인체 인수 가능

▶매매가-협의

▶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